

수소생태계 구축 본격

LX, 지난해 전주 수소도시 구현 협약 후 10여억원 기부금 기탁 인프라 구축 나서 수소충전소 구축·수소버스 운행 지원 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주시와 수소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8일 LX는 지난해 전주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후 약 10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일대에 약 4000㎡ 규모의 수소충전

소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LX 또 친환경 수소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운행 시 오염물질이 99.9% 제거된 물이 배출돼 가장 완벽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시스

수소버스 1대가 1km를 달리면 4.853kg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버스는 급출발·정거, 진동 등이 적어 승객·운전자 모두 만족감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LX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버스 운영을 지원해 전주·완주 수소시범 도시 완성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명 부사장은 "수소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전주시와 함께 전북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오른쪽)이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도내 상공인들도 전북 쌀 소비 촉진 동참”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참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는 쌀(미)을 쫄면 팔십팔(八十八)로 별찌를 뿌리고 밥이 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기 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기관장 88명의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촉진을 흥

보하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한 80kg 기준 17만 5천원까지 폭락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범 도민 대상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

북 지역 상공인들은 농업인을 위한 전북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 하겠다”라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부부장은 “올해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크게 증가될 반면 수확기 벼 값 하락이 예상되어 농업인이 절망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하루 두 끼 식사로 쌀을 소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현대차, 독일 상용차 시장 공략 나섰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BMDV 보조금 지원 연계 7개 회사에 27대 공급 예정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에 진출한다.

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물류, 제조 등 독일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47대를 전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독일 연방디지털 교통부(The 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 und Verkehr, 이하 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7개 회사가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BMDV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최근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상용차 구입업체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대상 차량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이러한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4월 수소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라젠 모빌리티 독일(이하 HMG)’을 설립하고 독일 내 업체들을 대상으

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최종 7개 회사가 현대차를 파트너로 선정하고 보조금 입찰에 참여했으며, 특히 7개 회사가 모두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현대차가 공급하게 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 중량 42톤급(연결차 중량 포함) 대형 카고트럭으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을 계기로 독일 수소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HMG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관측 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독일 내에서 수소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마크 프레이물러(Mark Freymueller) 현대차 상용혁신사업부장(전무)은 “이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계약으로 독일 내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는 독일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으로 사업 확대에도 적극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현대차는 스위스, 독일이 이어 향후 오스트리아·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기자

새만금공사,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형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혁신단을 지속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ESG 자문협의체를 구축하며 새만금 혁신과 국민 소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공모전은 새만금 혁신에 국민이 다방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혁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공사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상금은 300만원으로 최우수상 1건 100만원, 우수상 2건은 각 50만원, 장려상 3건

은 각 30만 원의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 참가상 10건은 커피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병재 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의 ESG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만금지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펼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회의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휴가철을 맞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 관련 사업이 많은데 비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 공직자들은 업체 관계자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삼가 달라”고 했다.

김 청장은 “비위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